



## 제3부

# 무형문화유산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인도 NGO의 정보 구축 참여와 협력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사하피디아 대표

## 개요

본 보고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육성에 있어 비정부 부문에 속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개발도상국의 NGO(Non-governmental Organisation, 비정부 기구)가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활동을 위해 정부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촉구한다(협약 IX. 1-2 항 및 운영지침 III.2). 인가를 받은 지역, 국가, 지방 및 특정 분야 NGO의 참여는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NGO 부문의 지원으로 국제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폭넓은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참여, 정당성, 정책수립과 실행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NGO의 역할을 살펴본다. NGO가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광범위하고 결합력 있는 포괄적인 정책과 이에 대한 실행 전략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가와 사회 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구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활발한 NGO의 존재가 책임감 강화, 역량강화 및 더 나은 관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지배구조의 분권화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 I. 무형문화유산 보호

무형문화유산은 전 세계에 걸쳐 중요한 공동의 문화유산 요소로써 인식되고 있다. 지난 수년에 걸쳐,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몇몇 과정이 국가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무형문화유산의 독창성과 다원성, 그리고 자유, 정의, 조화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표현물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무형문화유산에는 다면적인 모습이 존재한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 세대를 통해 계승된 무형문화유산의 역동적인 전승은 단순히 의식적인 학습의 도구를 통해서가 아닌, 과거에 그랬듯이 서로 다른 시간을 거쳐 다양한 주체들이 이룬 결정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대나 아주 근래에 전승된 수많은 관습, 표현물 및 사물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생겨나서 결과적으로 사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현대에 이르러 무형문화유산의 풍요로움과 가치를 인식하게 된 유네스코와 그 산하 기관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실행계획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II.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NGO의 역할

많은 국가들은 유산 보호를 정부의 특권으로 간주한다. 정부 프로젝트를 비롯해 NGO 등과 같은 조직의 참여는 무형문화유산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근래에 들어 유산에 대한 개입은 국가 주도의 후원형태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델로 그 방향을 전환했다. 사회가 해당 유산을 인정하고 유산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유산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정부 부문은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문제는 고대부터 민주적 절차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걸쳐 당연한 일로 이해되었다. 정부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아마추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실리론(Arthasastra)'을 쓴 인도의 철학자 카우틸리아(Kautilya)에 이르기까지

초기 사상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존 스튜어트 밀과 장 자크 루소 등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대의민주제(representative democracy)를 주장해서, 다양한 주장과 관심사를 표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전 세계적으로 NGO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NGO의 활동으로 대중들은 다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소멸위기에 처한 유산의 보존에 일조했다. NGO 부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무형문화유산의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기록화 작업과 지속적인 연행이 가능했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NGO는 전승자들이 의사결정과 유산 보존 과정에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닌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여 문화 관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사회와 NGO가 혁신적인 활동에 착수한다면, 이들은 지역 공동체 속에서 역사 지식을 향상시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이 참여하는 구전 역사의 기록은 인간의 '기억'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인간의 구술은 무형문화유산으로 문화활동에 대한 참고이자 지향점이다. 디지털 시청각 기술의 개발 덕분에 문서와 기록 자료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NGO의 참여는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미래의 기록보관소 구축을 위해 방법론, 콘텐츠 관리 및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구술 역사가, 큐레이터, 음향 및 멀티미디어 기록보관 관리자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역량 강화 전략은 문화유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위한 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 Ⅲ. 국제적 차원의 NGO 참여 :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모든 분야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 실행에 옮겨졌다. 1989년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 권고안(Recommendation on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al Folklore)의 자연적 발전양상과 살아있는 보물(Living Treasures)의 개념으로써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의 정의, 역할, 기능은 일련의 국제회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발전했다. 유네스코 협약의 기본 전제는 비계층적(non-hierarchical)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의 근간이 되는 '지식, 기술 및 연행'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고 보급하며, 이를 교육, 역량 강화, 기록화, 목록작성과 기록

보관, 연구 그리고 상호 이해를 위한 교류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운영지침은 무형문화유산의 육성을 위해 목록작성, 재정지원, 공동체의 참여 등 국가 및 국제적 보호 메커니즘을 위한 절차를 강조한다.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개정안에서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었다. III.2 절에서는 NGO 인가 기준을 비롯해 국제적 차원에서 NGO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다룬다.

인가 기준과는 별도로, 협약의 운영 지침은 인가의 양식, 신청서 제출 절차, 해당 NGO 기여와 헌신에 대한 검토를 규정한다. 인가를 받은 조직은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위한 서류
- 협약 18조에 언급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 국제 원조 요청
- 긴급보호목록 등재 종목을 위한 보호 계획의 효과

#### IV. 국가 차원의 NGO 참여

국제적 차원의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 각국이 무형문화유산의 식별, 정의, 보호 및 보급 활동에 관련 NGO를 참여시키도록 장려하고 촉구한다. 자문기관 또는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다음의 활동을 위해 공동체, 단체 및 가능한 경우 개인과 더불어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 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 (1) 영토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식별 및 정의
- (2) 목록작성
- (3)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의 계획 및 실시
- (4) 현행 운영지침 제1장의 관련 절에 따라 목록 등재를 위한 등재신청서 작성

## V. 무형문화유산 활성화에 있어 NGO 참여 경험

NGO의 참여 요구에 대해 각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를 촉진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분권화 메커니즘을 통해 NGO의 참여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각국에 요청했다.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과정에 NGO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채택했다.

각국에서 채택한 정확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해당 주제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이행에 있어 NGO의 역할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이 아프리카(9월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와 라틴 아메리카(10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두 지역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프리카 워크숍은 정부간위원회의 자문 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국 총회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추천을 받은 13개 아프리카 NGO를 결집시키기 위해서였다. 워크숍의 목표는 참가자들에게 협약의 이행에 있어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NGO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경험, 모범사례,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NGO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세네갈에서는 개발지원을 위한 국가 NGO 위원회(National NGO Council of Support for Development) 산하로 재편성된 일부 NGO가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보고가 있다. 해당 NGO는 1996년 3월 22일에 제정된 법 96-06에 따라 주로 지역 차원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해당 법은 문화개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과거 국가가 누렸던 권한을 선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의가 있는 지역 조직에 위임한다. NGO 지원으로 디우르벨주 느데메(Ndeme)에서 전통 거래와 노하우의 부흥을 위한 프로젝트가 개발되었고,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다(Tambadou 2003).

남아시아에는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무형문화유산이 있으며, 전체성이라는 틀 속에서 상호연관성을 맺으며 존재한다. 남아시아 지역에는 자발적 민간기관을 통해 이룩한 활동과 개혁을 추진한 오랜 전통이 있다. 자발적인 NGO 부문에는 수천 개의 기관이 있으며, 이들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에서는 공동체가 지역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강조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인도는 수세기에 걸쳐 각 분야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표현물로 구성된 방대한 무형문화유산의 보고임을 자랑한다. 변화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 공동체의 전통계승자와 후원자들은 오래 전부터 인도의 무형문화유산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대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유산의 활성화는 이들의 헌신과 노력의 증거이다. 비정부 차원의 노력은 식견이 높은 개인의 노력에서부터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노력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이와는 별개로 도서관, 기록보관소 등 수많은 기관과 국가 전역에 걸친 작은 노력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있어 비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풀(pool)을 형성한다. 이들 조직의 상당수는 산업부문과 기업들의 자선 기부를 받아 운영되지만, 자급자족 형태로 빈번히 재정난을 겪는 조직이 더 많다. NGO 부문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인도 정부는 1980년 자선기부법(Charitable Endowments Act)에 따라 문화부 산하에 국립 문화기금(National Culture Fund, NCF)을 신탁형식으로 설립했다. NCF는 기금형태(corpus fund)로 운영되며 기업 부문, NGO, 중앙 정부, 민간 및 공공 부문, 개인이 유·무형의 인도 문화 유산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보존하도록 장려한다. NCF는 무형문화유산의 모든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인도의 주요 비정부 기구와의 활발한 협력활동을 통해 NCF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하고 촉구한다.

기념물 보호를 기본목표로 하는 인도예술과문화유산신탁(INTACH) 등 다수의 주요 비정부 기구는 최근에 무형문화유산을 그들의 규정 활동에 포함시킴으로써,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의 가시성을 추구한다. 인도 청소년 고전음악 및 문화진흥회(SPICMACAY), 인도공예부흥트러스트(Craft Revival Trust), 아시아헤리티지재단이 인도의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이다. 뉴 델리에서 시작된 기구인 사하피디아(Sahapedia)는 인도 문화와 유산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공개 백과사전식 웹사이트이다. 사하피디아의 목표는 다양한 인도 문화를 이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지식을 널리 알리고 참여를 장려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콘텐츠 생성에 참여하는 방식인 사하피디아는 남아시아와 세계 전역의 기고가들에게 그 문을 개방하여 관심 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를 장려한다. 사하피디아의 사명은 특히 사용자의 콘텐츠 생성 참여 방식을 기반으로 인도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고유한 단일 창구를 통해 접근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분야의 다른 능력을 가진 이용자가 서로 간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웹 자원(web resource)을 제공하고, 인도 유산 분야에서 공동체가 생산하는 교육자원이자 행동강령으로써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 프로젝트로써 사하피디아는 다양한 문화 형태와 관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열성적인 기고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문화에 대한 콘텐츠 생

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교육 프로젝트로서 사하피디아는 다양한 교육 단계에서 학생과 교육자 모두에게 중요한 교육 도구다.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현재 인터넷상에 없다.

## VI. NGO 부문의 당면 과제

NGO가 공동체 노력의 연계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GO 부문에는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촉진 메커니즘(facilitating mechanism)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NGO와 관련된 불신과 책임감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법률 제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감 있는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취함으로써 이들 기관들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지원을 얻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필자가 참여했던 인도의 경우를 언급하고자 한다. 인도의 첫 번째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포는 인도 고전 무용과 연극의 부흥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 기관인 마르기(Margi)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도 산스크리트어 연극인 쿠티야탐(Kutiyattam)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랐다. 연극 절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정보도 빈약했다. 비록 그 수는 적었지만 연극인 공동체는 이때까지 공동 작업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공동체 내에서 불확신과 경쟁이 팽배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처음에는 등재로 인한 혜택이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등재가 발표되자 국가와 공동체는 이를 열렬히 환영했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해당 유산의 활성화 문제를 논의했다. 재정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한 예술가들은 창조적인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쿠티야탐을 교육하는 주요 학교 세 곳은 새로운 창작극 제작, 이전 작품의 재현, 새로운 안무 개발 등을 통해 쿠티야탐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를 밟았다. 두 번째 등재 사례인 베다 찬송(Vedic Chanting)의 경우, 후원자와 전승자들 역시 조직화되지 않은 별개 집단이었지만 베다 찬송의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았다. 베다 찬송을 교육하는 많은 학교들은 해당 전통의 활성화를 위한 각각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또한 서로 지원하기 위해 향후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다. 공동체의 이러한 단결이 유네스코의 등재의 가장 큰 혜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NGO는 국가 및 국제적 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무형문화유산 강화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보고서는 무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 개입활동의 핵심으로, 국가와 NGO 부문의 협업을 통해 절차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협력전략을 제안한다.